

프랜차이즈 무한경쟁속 지역 토종브랜드 맹활약

베비에르 과자점·커피뷰는 집·유생촌 등

창업시장서 인기... 전국구 진출 모색도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지역 토종브랜드의 활약이 뜨겁다. 특히 이들의 선전은 창업시장의 판도까지 달라지게 하고 있으며, 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토종브랜드 빵집으로 롯데백화점에 입점 화제가 됐던 '베비에르 과자점'을 비롯해 지역 커피전문점의 쌍두마차격인 '커피뷰는 집'과 '커피에담', 돈까스전문점 '유생촌' 등이 점포를 확대하며 창업중이다.

고흥 출신 마옥천(49) 사장이 1991년 광주시 서구 월산동 돌고래에 33㎡(10평) 남짓한 작은 동네 빵집으로 출발한 베비에르는 꾸준한 노력 끝에 성공을 거뒀. 현재는 마 사장이 운영하는 풍암점(본점)과 봉선점, 이번 롯데점 등 3곳 외에 마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일곡점과 월산점 등 총 5곳이 광주에서 영업하고 있다.

베비에르는 개업 20여년만에 기존 4곳 매장서 연 25억원의 매출을 올

리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전제'와 함께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 빵집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베비에르의 성공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세로 무너져가고 있는 지역 상권의 부흥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 사례라며 이러한 지역 브랜드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고 있다.

제과·제빵 업계에 폭풍성장하고 있는 베비에르가 있다면 커피전문점 업계엔 수도권은 물론 지역 중소도시까지 전국에 걸쳐 커피전문점 창업경쟁 등 총 5곳이 광주에서 영업하고 있다.

무한리필 돈까스집으로 고객몰이를 하고 있는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집'(대표 유영철)이다. 지난해 3월

이들은 대기업 계열과는 달리 점포망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는 노고를 하지 않고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 창업한 커피뷰는 집은 현재 광주·전남에 26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이들이 주축이 돼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피에담은 광주와 화순, 나주 등 지역에만 30여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외식업계에도 복고 열풍과 함께 추억을 되살려 대박을 내고 있는 지역 토종브랜드가 있다.

다들 점이 창업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덕분'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장로 본점 이전과 함께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광주시 서구 동천동지점까지 4호점을 내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생촌은 현재 월곡점, 유·스퀘어점, 수완지구점 등이 개점을 준비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화순, 여수, 목포를 포함해 광주·전남 지역에 70여개 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또 부산 등 전국구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브랜드들보다 가맹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서 기존 브랜드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창업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덕분'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 백화점 설 선물세트 잘 팔렸다

한우·홍삼세트 등 주도... 신세계 2%·롯데 15% 신장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올해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3일 설대목인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014 설 선물세트 판매전'을 벌인 결과 매출액이 전년 설에 비해 2%가량 신장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판매전을 벌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신장세가 더 두드러져 15%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전년 대비 25%의 고신장을 보인 10만~20만원대 중저가형 국내산 한우세트가 선물세트 매출 신장을 주도했다. 여기에 10만원 미만 중저가형 세트들 중

심으로 전년 대비 7% 신장된 과일세트, 건강 선물세트로 성가를 높이며 전년 대비 8% 매출 신장을 기록한 홍삼세트 등도 '2% 신장'에 크게 가세했다.

반면 굴비세트와 전복세트 등 수산물 관련 선물세트는 매출이 오히려 10% 감소를 보였다.

이는 수산물에 대한 일반발 방식은 오염 우려 등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이들 수산물에 대한 구매 수요가 한우세트, 과일세트, 건강세트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광주신세계는 분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나주 '녹색한우' 등 한우세트 매출이 전체 선



상큼한 봄 코트
3일 입춘을 앞두고 지난 27일 광주전남 최초로 광주신세계 백화점 5층 여성리뷰장에 입점한 '럭키슈에트'가 상큼한 간절기 봄 코트를 선보였다. 코트의 가격은 49만8000원. <광주신세계 제공>

작년 전남 농수산물 수출 3억달러 돌파

전남지역의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실적이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식품 및 수산물 수출액은 각각 1억4800만달러, 1억5600만달러로 모두 3억4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 전국 총 농수산물 수출액 78억7600만달러의 3.9%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수출액 2억9400만달러보다 1000만달러(3.4%)가 증가한 수치다. 2011년에는 2억6000만달러였다.

농산식품별 수출실적을 보면 유자차가 2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파프리카 920만달러, 배 870만달러, 김치 680만달러, 닭고기 670만달러 순이다. 수산식품은 김과 전복이 4400만달러,

43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못 1800만달러, 미역 1400만달러 순이다.

전남도는 3억달러 달성의 주요인으로 중국 등 수입국가의 친환경 농수산물 수요 증가, 수출국 다변화와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에는 신안 비치호텔에서 3억달러 달성 기념행사를 열고 수출 유공자 표창,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코스피지수 1919.96 (-21.19)	코스닥지수 513.62 (-1.58)	금리 (국고채 3년) 2.88%	원·달러 환율 1084.50원 (+14.10)
---------------------------	-------------------------	----------------------	------------------------------

'대졸 백수' 300만 시대

전년보다 3.2% 늘어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에 따라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非)경제활동인구는 307만8000명으로 전년(298만3000명)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지난해 100만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0만명 선을 각각 돌파했다. 전문대 졸업자는 100만8000명으로 2012년(99만6000명)보다 1.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7만1000명으로 전년(198만7000명)보다 4.2%가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일자리 없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가사·육아 종사자, 학생, 연로자가 많지만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나 그냥 한 사람도 포함된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 159만2000명(전세대졸 48만6000명, 대학교졸 이상 110만7000명)이었으나 2004년 200만명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300만명을 돌파했으니 9년 사이에 100만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 2005년 15% 선을 각각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18.98%까지 상승했다. 비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2명 꼴이다.

이런 증가에는 고학력화의 영향이 컸다.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30%대에 머물다가 1995~1996년 50%대, 1997~2000년 60%대, 2001~2003년 70%대에 이어 2004년부터 80%대로 올라섰다. 고학력화에 따라 고학력 은퇴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학력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고학력 취업자도 늘고 있다. 대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520만명대였으나 2012년 10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작년에는 1055만9000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의 42.12%에 해당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선발

중진공, 28일까지

국내 대표적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2014년도 입교자 선발이 3일부터 시작된다.

중진공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를 선발,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 및 제작비, 창업 활동비 등 사업화 단계별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28일까지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롯데쇼핑 이사로 승진

류민열(48)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이 지난 28일 단행된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쇼핑 이사로 승진했다.

광주점장 취임 2년 만에 이사로 승진한 류 이사는 "롯데백화점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명품 브랜드 유치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패션 명소가 거듭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 점장은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마치고 1990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원팀장, 경영지원부문 총무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2년 2월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에 부임했다.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T.062-228-6330
(금남로5가역 기업을행동 투레유르 골목)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2014 입학축하! KAWAI 피아노 특별판매

엔화의 환율 하락에 연동한 최대 30% 할인된 솔직한 가격. 42년 역사의 (주)코스모스 악기가 공식 수입, 직접 공급하여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모델명	GM-10	GE-20	GE-30	RX-2	RX-3	RX-5	RX-6	RX-7
모형	11,195,000	11,240,000	11,450,000	11,600,000	12,047,000	12,382,500	12,782,500	13,307,500
특별 판매가격	10,500,000	11,000,000	12,000,000	13,000,000	14,900,000	18,400,000	21,600,000	25,800,000

가와이 그랜드 피아노의 특징

-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최대의 그랜드 피아노 공장인 일본 하마마츠 류우 공장에서 제작.
- 87년 역사, 3대에 걸친 타협 없는 철저한 품질관리.
- 세계최초의 "카본 ABS 내장 건반 액션" 이 적용된 "일레니움 III" 건반사용

한정수량 품절주의 전화문의주세요.

RX-3 가격인 29,000,000원 14,900,000원

종합악기매화점 주식회사 **코스모스악기** 광주지점 062)515-8844

COSMOSMUSIC.COM